40억 투입… 2021년 진도소방서 개소

인원 120명, 장비 25대 규모

오는 2021년 전남 진도군에 소방서〈사진〉가 들어선다.

현재 진도군의 경우 해남소방서 관할의 1개 진도안전센터와 5개 지역대에 근무 인원 61명과 17대의 장비가 배치돼 활동 중이다.

진도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거리가 떨어진 해남에서 소방차가 출동하다보니 대형 재난발생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2021년 진도소방서 개서에 앞서 2020년에 임회 지역대가 임회 안전센터로 상향돼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진도소방서는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전체 면적 7325㎡, 지상 3층 2개동으로 증축할 예정이다.

앞으로 진도소방서가 신축 되면 인원은 약 120여명, 장비는 25대 규모로 기존 보다 2배 정도 증가 된다.

/전남 진도=김남중 기자 5555knj@

15일 '인천 개항장 문화재 야행' 개최

중구청·개항박물관 등서 이틀간

인천 개항장 문화재 야행. /인천시

'2019 인천 개항장 문화재 야행'이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일원에서 열린다.

'인천 개항장 문화재 야행'은 중구청(구 인천부청사)과 인천개항박물관(구 인천일본제1은행지점), 인천근대건축전시관(구 인천일본18은행지점) 등 문화재와 문화시설의 야간 개방과 함께 단청, 지화, 화각 등의 무형문화재 체험을 통해 문화재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행사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개항기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세트장과 포토존 조성은 물론, 과거 개항장 일대의 모습과 지난 2016년부터 개최되어 온 개항장 문화재 야행행사 진행 모습이 미디어 랩핑을 통해 중구청 벽면에 재현돼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장성군, '명품 잔디' 생산·비료 지원

이달 말까지 비료 공급키로

'잔디 메카' 장성군이 명품 잔디 생산에 박차를 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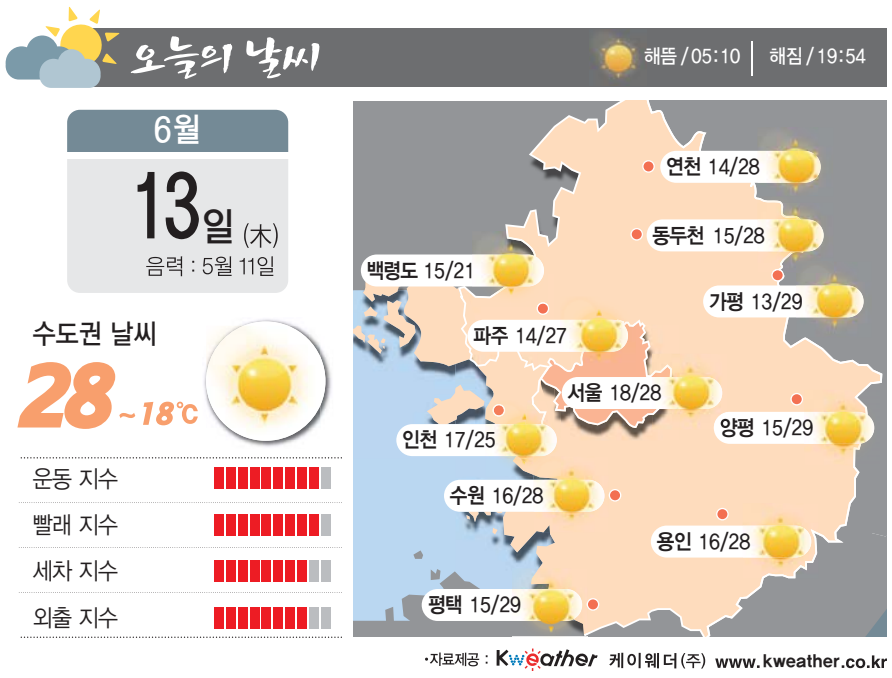
장성군은 잔디 메카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잔디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잔디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은 잔디 연작 재배로 약화된 지력을 향상시켜 고품질 잔디를 생산하기 위해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잔디 유기질비료는 유효 미생물의 서식을 도와 잔디의 생육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토양을 중화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의 기반이 된다.

이에 군은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800여 잔디농가에 맞춤형 비료 10만포를 지원한다. 비료는 농가의 잔디 재배면적에 따라 비례지원하며, 비료 공급 대행업체로는 삼서농업협동조합이 선정됐다. 군은 이달까지 잔디농가에 비료 공급이 완료되도록 할 방침이다.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를 생산하는 최대 잔디 생산지로 '잔디 메카'로 불리고 있다. 또한 지역농가의 고소득에 기여하는 대표 작물로 자리 잡으며, 현재 1197농가가 1272ha에 잔디를 재배하고 있다.

/전남 장성=봉채영 기자



"세계수영대회 北 참가 온힘"

이용섭 광주시장 특별기자회견

"내달 3일까지 신청땐 참가 가능
총 196국 선수단 6285명 집계"

이용섭 광주시장이 12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한 달 앞두고 기자들에게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섭 광주시장은 "7월 3일 경기 엔트리 마감까지만 신청하면 북한의 수영대회 참가가 가능하다"고 12일 말했다.

이 시장은 대회 개막 한 달을 앞둔 이날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가를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제수영연맹(FINA) 등을 비롯해 다양한 경로로 북한의 참가를 제안해왔다"며 "세계 유일 분단국가에서 열리는 만큼 체육을 통한 교류와 소통이 곧 평화임을 세계에 보여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희망적인 것은 북한이 FINA가 개최한 대회에 한 번도 불참한 적이 없다"며 "내년 열리는 도쿄 올림픽 출전권의 43%가 광주대회에 배정된 것도 북측 참가를 유인할 요소"라고 설명했다.

광주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전망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이 시장은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196개 국가에서 6285명, 선수만 따로 집계하면 2612명이 참가 신청을 마쳤다"며 "내달 3일인 경기엔트리 마감까지 참가국 수는 바뀔 수 있다"고 언급했다.

2년 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대회에는 177개 국가 7275명(선수 2303명)이 참가했다.

2015년 러시아 카잔대회 참가 규모는 184개국 6683명(선수 2416명)이다.

이 시장은 "가장 중요한 수치는 참가국가와 선수단 규모"라며 "이 기준만 놓고 보면 내일 오전 9시인 선수등록 마감을 앞두고 이미 역대 최대"라고 강조했다.

8월에 수영 동호인이 출전하는 마스터즈대회에는 현재 74개국 3871명이 참가 신청했다.

이 시장은 "역대 어느 대회보다 많은 국가와 선수가 참여해 풍성한 기록을 거두고 안전한 대회가 되도록 남은 30일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부산시, ACG연차총회 등 금융회의 유치 성과

9월 AFIS·ASSMA연차총회 열어
세계선물업협회포럼 매년 개최키로

부산시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2020년 제24차 아·태예탁결제회사협의회(ACG) 연차총회의 부산 유치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ACG연차총회는 아시아태평양지역 24개국 35개 예탁결제회사에서 150여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로 올해 9월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이 ACG 의장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9월 3일과 4일 아시아 채권유통시장 회의(AFIS) 및 아시아주택금융기관협회(ASSMA) 연차총회를 유치해 ASSMA 11개 회원사 기관장,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 관계자 등 국제 금융전문가들이 대거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5월에는 한국거래소가 국내·외 파생시장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세계선물업협회(FIA) 포럼을 개최하고 매년 부산 개최를 확정했으며, 부산시와 세계경제연구원(IGE)에서는 부산국제금융콘퍼런스를 올해 처음으로 부산에서 유치·개최해 세계은행(WB), 국제금융협회(IIF) 관계자 등 국제 금융전문가들이 부산을 방문한 바 있다.

그동안 대형 국제회의가 주로 서울에서 개최돼 부산은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무색할 정도였으나, 시와 BIFC 입주금융기관들이 올해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10주년을 맞아 부산이 '새로운 10년' 글로벌 국제금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금융 관련 국제 세미나·포럼·회의 등 유치·개최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꾸준히 노력한 결실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금융기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부산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국제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 금융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 세미나·포럼·회의 유치가 절실하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산=최인락 기자 remark@

전남교육청 '편한 교복' 보급 앞장

인권친화적 교복구입 권장

목포 영화중 학생들이 편한 교복을 입고 등교하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2019학년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한 데 이어 학생들의 활동성을 크게 높인 '편한 교복'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 새 학기부터 도내 중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관련 예산 45억원을 편성해 중학교 신입생 1인당 30만원 씩의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편의성을 크게 높인 편한 교복 보급에 나서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누구나 입고 싶은 편한교복 채택'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다양한 형태의 인권친화적 교복 구입을 권장하고 있는 것.

도교육청이 기존 교복의 획일적인 디자인과 재질에서 벗어나 편의성·기능성·경제성을 고려한 활동성 높은 교복 착용을 적극 권장한 결과 이미 도내 160여 개 중·고생들이 편한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봉채영 기자

해남 땅끝햇살찬 영농조합 필리핀에 3년간 고구마 공급

2013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이래 냉동 고구마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고구마 양갱이, 애견 간식용 고구마말랭이 등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온 해남의 마을기업 땅끝햇살찬 영농조합법인이 아세안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전남중소기업진흥원은 땅끝햇살찬 영농조합법인이 필리핀 업체인 필프레시에 3년간 800만 달러의 고구마 원재료 및 가공식품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양질의 고구마 원물과 냉동고구마 등 가공식품을 선별해 필프레시에 공급하고, 해당 업체와 함께 제품 개발, 현지 공장 설립, 마케팅 및 제품 판매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해남=봉채영 기자